

사회환경의 변화와 학교도서관의 진로

서진원*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
| II.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천과정 | 1. 신자유주의 개념 |
| 1. 해방이후로부터 1950년대까지 |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 2.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 3.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 |
| 3. 1980년대 이후 | V. 결론 |
| III. 학교도서관 운동 | |
| 1.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과 그 원인 | |
| 2. 학교도서관 운동의 실패와 그 원인 | |

I. 서론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현장의 교육적 장치이다. 이러한 교육적 장치들은 반드시 그 환경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요구가 사라지면 그러한 장치도 사라지거나 침체되어 버린다. 학교도서관은 우리사회에서 오래동안 침체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교육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사라져 버린것인가. 아니면 학교도서관이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만족스러울만한 해결을 하지 못한것인가. 만약 그러한 요구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타당한가--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학교교육의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그 대답을 찾아 볼 수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같은 관점에서 과거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 학교교육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질문들에 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져 한다.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I.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그 중요한 특성과 관련하여 편의상 3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해방이후로부터 1950년대까지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하에서 군정청 학무국에는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가 구성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탈피하고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교육이념, 교육행정, 교육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정해진 것도 이때이다.

제 1공화국에 들어와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어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1951년에는 6-3-3-4제의 기간학제가 성립되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국가의 교육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특별조치를 취하여 난국을 타개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1959년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완성되고 이를 비롯한 국가의 교육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각종의 세법이 제정되었다. 이와같이 이 시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토대를 이룬시기였다고 할 수있다(한준상, 1994, pp. 22-25).

2.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제 3공화국은 1963년 기존의 교과중심 교과과정을 생활중심 교과과정으로 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으며 1973년에는 다시 학문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정하여 국민자질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의 쇄신, 안보 및 새마을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 입시과열로부터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9년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중학교 입학 무시험제를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74년에는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대도시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단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계획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학생들의 극심한 과외수업을 초래하였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대두 된 것은 이때부터이며 전술한바 중

학교 입학 무시험제, 고교 평준화 제도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문제점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 갔을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지 못하였다.

3. 1980년대 이후

대학입시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0년 7.30 교육정상화조치는 과열과의 해소와 교육방송 신설, 대입 본고사 폐지등이 중요한 내용이었다. 제 5공화국의 교육혁신에 의한 국정지표는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이었으며 1980년 중반의 교육개혁위원회(1985-87)는 대학입시제도,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우수교원 확보, 평생교육 체제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1988년 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자치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Ⅲ. 학교도서관운동

1956년 미국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한국에 들어 온 것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피바디 교육사절단에 Mrs. Swiger, J. M. Elrod, R. Burgess 같은 도서관 전문가가 포함되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의 도서관교육과 그에 포함되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교육이 처음으로 소개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1960년대에 그 전성기를 맞았으나 그것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실패한 이후 1970년대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인, 요인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같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운동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체된 상태로 전락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같은 논술은 현재 학교교육의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학교도서관 운동이 주목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부흥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과 그 원인

전술한 바와같이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내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Mrs. Swiger, J. M. Elrod, R. Burgess 등이 사서교사 강습을 포함한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인으로는 이재철, 명재휘, 이한용선생등이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분들로 부터의 도서관 교육이 토대가 되어 1960년대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도서관연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운동의 발전에 대한 또다른 이유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새교육 이념의 출현이다. 새교육 이념에 따라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으며 자율학습에 있어서는 이를 가능케 할 풍부한 교육자료가 필요하였다. 교육자료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선각자들에게 학교도서관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당시의 김두홍선생은 회고한다(김종성, 1998. 7.8, 도서관문화 p. 297). 이것은 또한 그 당시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그것을 받아들일만큼의 분위기는 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입시과열, 과외수업과열로 인한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성행하는 분위기였다면 아마도 그와같은 선각자들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그 당시의 우리나라 학교교육현장이 상대적으로 지금의 상황보다는 입시과열, 과외수업과열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도에 있어서는 보다 나았을 것이며 비록 교육환경은 지금보다 열악했지만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보다 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요인은 학교교육 선각자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열의와 기대이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운동이든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한다. 사람이 주체가 된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자세와 성실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그 운동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박태신선생은 회고한다(김종성, 1998. 9.10, 도서관문화, p. 25). 그당시 사서교사로 활동하셨던 김세익, 김두홍, 박태신선생 등과 학교교

육의 관리자층에 계셨던 이윤근, 김성태, 박경원, 추월영선생 등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대한 신념과 열의는 앞의 주에서 제시한 참고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서 각 학교에 폐품수집과 이삭줍기 활동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김종성, 1998, 7.8, 도서관문화, p. 11). 그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열성적인 자세와 활동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은 영남지방으로부터 비롯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60년대의 학교도서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분들의 열성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업들을 보면 1960년 경남 교육국 학무과 주최의 사서교사 연구강습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19회의 사서교사 강습회가 있었으며, 전국 학교도서관대회¹⁾가 1962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시작하여 1970년까지 9회 개최되었다. 전국 학교도서관 연구대회가 대한교육연합회 산하의 학교도서관 연구회 주관으로 1963년 경기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후 1968년까지 6회 이루어 졌으며 이밖에도 학교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 사서교사자격 강습 등이 전국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 지면서 1960년대는 전술한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것이다(김종성, 199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pp. 45-80).

2. 학교도서관운동의 실패와 그 원인

1960년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부터는 침체되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있다. 먼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인한 입시교육과 과외수업의 과열을 지적 할 수 있다. 학력중시풍조가 우리사회에 확산되면서 사회적 신분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학력과 명문학교로 집중되었다. 대학입시의 경쟁과 그중에서도 명문대학의 입시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온 암기위주의 주입식교육, 교과서위주의 획일적인 집단교육등은 이같은 결과의 부산물이다.

학교도서관은 정상적인 교육에서 그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교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1) 이것은 관종별의 도서관인대회 중 학교도서관인들의 대회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70년대 이후 이같은 학교교육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학교 도서관 운동을 실패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문교부 조직체계내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없었으며 문예체육 국 사회교육과의 7개 분장업무 중 하나인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도 감독사무'에 학교도서관이 포함되는 정도였다(김종성, 199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pp.68-69). 문교부 조직구조에서 이정도의 위치는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서량, 사서교사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충분히 제정되지 못하였고, 특히 사서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보수규정은 조직구조상에서 사서교사의 승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건의는 전국 도서관대회 등을 통해서 수차 주장 발표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로 초기의 열성적이었던 사서교사들도 현실적인 암담한 전망 속에서 차츰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학교도서관의 모든 활동들이 교육현장에서 기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 당국과 교육행정관료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1960년대의 활발했던 학교도서관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행정당국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당시(1970년대) 나타난 시청각교육원에서 잘 보여주게 된다. 학교도서관이 침체의 경로로 빠져들게 될 무렵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는 시청각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시청각교육원장의 직위도 학교도서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서 시청각교육원이 도서자료도 시청각기자재의 일종이다 라는 주장을 할 만큼 그세력이 확장되고 학교도서관은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김종성, 1998. 7.8, 도서관문화, p.16).

마지막으로 또하나의 원인을 든다면 도서관학(문헌정보학)과 교육학자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은 좀더 조사를 요하지만 필자는 가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도 분명 그같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활동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논문은 몇편이나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점은 도서관학자(문헌정보학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도서관은 문헌정보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두 분야의 연구활동이 학교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학

교교육의 행정당국과 교육현장 더 크게는 우리사회에 충분히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교육학자와 문헌정보학자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면 사정은 많이 나아졌을 것이다.

IV.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에서 교육정책 만큼이나 빈번하게 바뀐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고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들은 수없이 바뀌어와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모두 세계적인 대학입시 전문가들인 셈이다. 현 정권에서도 '새교육공동체 추진자문회의'를 만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본 줄기는 신자유주의에 기본적인 것으로 이것은 김영삼정권의 교육정책이래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개념은 경제학의 한 정책사조이며 독일의 오이켄(Walter Eucken), 하이엑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미국의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영국의 팝퍼(Karl R. Popper)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고있다(최용호, 1982, p. 58). 그 중요한 주장은 자유의 존중이며 자유경제사회의 우위성을 실증적으로 주장하고 자유와 경쟁질서를 확립시키는 범위내에서만 최소한의 정부의 간섭을 인정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 하는 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2차대전 이후 먼저 독일에서 주장되었다. 독일(서독)에서 이 같은 개념이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2차대전 이후 나치즘에 의한 자유의 억압과 국가의 통제경제에 대한 반감이 서독 국민들에게 크게 일어났고, 전후 극심한 '인플레'를 경험한 그들에게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서독은 그후 20여년간에 걸쳐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

적 시장경제의 전통을 확립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나 1960년대에 와서 신자유주의정책은 중단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사상으로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케인즈주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최용호, 1982, p. 65).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

케인즈주의 (Keynes)	신자유주의 (Friedma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고용의 실현과 분배의 불공정의 타파를 목표로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정도 희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2. 국가는 완전고용과 분배의 공정을 실현하기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 3.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4. 국가가 할 일은 국가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어떤 개인에 의해서도 행해 질 수없는 것이다. 즉 위험, 불확실의 결과를 구제하는 일, 저축과 투자의 조절 등이다. 5.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부정한다. 실업이나 불황은 자유방임 때문에 생긴다. 반자치체를 만든다. 돈 버는 것을 제한한다. 6.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활용해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디까지나 자유는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목표실현을 위해서도 자유를 희생해서는 안된다. 2. 국가는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3. 중앙집권국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권적 정부가 좋다. 4.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자유경제가 잘 기능하는 rule을 만드는 일,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리고 시장에 맡겨서는 값비싼 일 등이다. 5.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인정한다. 정부 간섭에 의해서 실업이나 불황은 오히려 심화한다. 자유기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6.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의 저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1988년 교육개혁법으로 가시화 된 교육의 기본 방향은 학교간의 경쟁체제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강화, 재정운영에 대한 사기업의 진출 대폭 허용 등이며 국가공통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을 도입하여 연령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순위가 공개되며,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천보선, 김학한, 1998, p. 49).

미국의 경우도 공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래 부시, 오늘의 클린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개념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운동과 학교교육의 절대적 표준을 국가수준으로 정하자는 국가교육 성취기준(National Educational Standards) 개발운동,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의 주장이며, 1994년 클린턴 정부에서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로 교육정책이 법제화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chool Readiness : 미국의 모든 취학전 아동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발육의 충실을 기한다. ② School Completion : 고등학교 졸업율을 최소한 90%로 한다. ③ Student Achievement and Citizenship : 모든 학생들은 4년마다 주요과목들에서 그능력을 검증받고, 미국의 현대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적인 고용과 교육의 향상, 책임감있는 시민으로써의 양성을 미국의 모든 학교는 확실히 한다. ④ Teac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 미국의 모든 교사들은 다가올 세기에 모든 학생들을 대비시키고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는다. ⑤ Mathematics and Science : 미국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에서 세계 제일이 된다. ⑥ Adult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 모든 미국성인을 교육하고, 그들이 세계경제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구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⑦ Safe, Disciplined and Alcohol-and Drug-Free Schools : 미국의 모든 학교는 마약과 폭력, 불법무기소지 그리고 알콜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교육에 공헌하는 질서 정연한 환경을 만든다. ⑧ Parental Participation :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를 촉진한다(Diane Ravitch, 1995, pp. 187-192).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1995년이래 1997년까지 4차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와 방식의 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기반구축 - 학점은행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 대학 운영, 여성 및 노인교육 확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정보화 추진 등 ②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대학모형의 다양화, 특성화, 설

립.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등 ③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교사 초빙제 등 ④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과과정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의 강화, 외국어교육의 강화 등 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시제도 - 학생부 도입, 사립대학 학생선발 자율화 등 ⑥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학교 운영 - 학교평가제 실시, 중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설립의 준칙주의, 중등학교 선택권 부여 등 ⑦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규제완화, 교육과정 평가원 설치 등 ⑧ 품위있는 유능한 교원 육성 - 교원양성 및 연수강화, 능력중심의 승진·보수체계 등 ⑨ 교육재정 GNP 5% 확보(천보선, 김학한, 1998, p. 64.)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념에 바탕을 둔 시장원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교육상품(교육활동)의 개념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공급자간의 경쟁체제 확립, 수월성 추구,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기업적 학교경영 등을 경제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행정권의 교육정책도 전술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개념을 수용하고 1995년 이래의 교육개혁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천보선, 김학한, 1998, p.7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주장되면서 열린교육, 평생학습, 창의적교육, 교육정보화 등의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개선점이 제시되고 있으나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념이 교육에 적용되면서 지나친 시장경제 논리가 학교의 인간교육을 해 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개입을 축소시킴으로써 일반 서민층(빈민층)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지, 혹은 교육에 대한 자본의 참여는 교육의 불균형과 사회계층간의 극심한 격차를 조장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3.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

교육정보화는 1996년 8월의 제 3차 교육개혁안에서 '21세기형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 운영, 정보기술 활용교육, 교육정보산업의 육성'을 기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천보성, 김학한, 1998, p.70).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부문의 정보화는 교육용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1교 1실습실 이상 확보 및 신기종 보급확대 등을 추진하는 학교 컴퓨터교육지원, 교수·학습 DB개발 및 CD-ROM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하는 '교수·학습 정보DB' 구축, 진로·취업과 생활지도 정보 DB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학교생

활 정보 DB' 구축, 학교에 정보통신용 회선확보 및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PC 보급등을 추진하는 학교정보화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세분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 3조 600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다(김종성, 1998, 도서관, p.31).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일면(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정보화 사업은 너무 하드웨어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음을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김종성, 1998, 도서관) 컴퓨터 통신과 기기들의 사용기술에 대한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부족한 점이라든지, 실제로 이러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자료의 부족이라든지, 이 같은 컴퓨터 통신과 기술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환경조성 부족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이 같은 컴퓨터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만 갖추어지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물론 하드웨어와 병행해서 관련된 사업들도 계획했겠지만 교육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계획들의 우선 순위를 타당성 있게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하드웨어 관련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김종성, 1998, 도서관, p.37).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도서관과 전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도서관은 원래가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서자료는 오래동안 인류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정보매체였으며 그같은 이유로 도서관이란 명칭을 달았을 뿐이다. 2차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는 정보기록 매체들과 컴퓨터자료들도 그들이 모두 정보기록 매체라는 공통점을 가진 한에 있어서는 한곳에서 관리됨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곳은 역사적으로 오래동안 정보매체를 관리해온 도서관이 가장 타당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 현장에서와 같이 소규모 단위의 기관에서는 모든 교육 정보자료들이 한곳에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곳은 시청각실이나 컴퓨터실보다는 학교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명칭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도서관과 시청각실이 통합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학교도서관 명칭이 변경된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학교도서관이란 명칭이 익숙하며 다른 명칭들은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고집 할 경우에 이같은 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아마도 미국 등에서 학교도서관명칭을 바꾸게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명칭을 적절히 변경하는 문

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교육공학전공자들과 문헌정보학전공자들 그리고 교육정보자료의 관리에 관련된 다른 전공자들이 통합된 한 기관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V. 결 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실시되면서 학교교육은 자율성과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흥미, 소질, 특징, 능력에 따른 각자의 자기개발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교과서중심, 교사중심의 한정된 집단교육, 암기식 주입식교육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또한 창의성 개발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열린교육은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가장 포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의 교육 방법으로는 최선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키워주는 자기개발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독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조짐들은 학교도서관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아직 우리사회는 이러한 조짐들을 학교도서관과 연결시키는데 충분치는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사회의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조짐, 요구, 경향들은 학교도서관과 관련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 문헌정보학분야에서 학교도서관의 우리 학교교육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학교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부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날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의 부흥과 성공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종성,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① 김두홍선생”, 도서관문화 제 39권 4호, 한국도서관협회, 1998. 7.8.
2. ---,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② 박태신선생”, 도서관문화 제 39권 5호, 한국도서관협회, 1998. 9.10.
3. ---, “1960년대 한국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제32권 3호, 1998.
4. ---, “교육 정보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성찰적 접근”, 도서관 제 53권 1호, 국립중앙도서관, 1998.
5. 이돈희 등,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문학, 1998.
6. 최용호, 현대경제정책의 사조, 공학사, 1982.
7.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8. 한준상, 한국교육개혁론, 학지사, 1994.
9. Diane Ravitch, National Standard in American Educ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1995.